

## #01. 편집자의 말

허호정

『엑시빗』 제1호는 동시대 서울 미술에서 작동하는 ‘젊음’을 질문한다.

1 김선기, 『청년팔이 사회』(오월의봄, 2019)

미술관들에서 신진 작가 지원 전시가 정례적으로 열린다. 제도는 새로운 미술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장담하며, 젊음이 곧 가능성이라고 주창한다. 작가/기획자들은 나이와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고 기금을 받아 작업을 진행한다. 철마다 대관 공간에 줄을 서는 이들 한편에, 낙방한 이들은 어떻게 다음을 모의할지 수심에 젖는다. 젊음은 자주 썸의 중심에 서지만, 동시에 가장 유약한 것으로서 실체를 드러내기도 한다.

『엑시빗』 1호는 지금 이곳의 전시들에 통용되는 ‘젊음’의 틀을 살펴보고 그 유효성을 질문해본다. 그리고 현시점의 한국 미술계에서 ‘젊은 미술인’으로 사는 일의 고충을 나눈다. 제도의 수혜를 받지 않고 미술계에 진입하는 일은 가능한 것인가, ‘젊음’의 감각에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저기 소환되는 ‘젊음’의 양상과 ‘나’는 얼마나 같고 또 다른가.

『청년팔이 사회』<sup>1</sup>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세대론을 비평하며, “청년”, “젊음”을 포함한 ‘세대’의 키워드가 현상 독해의 층위를 하나로 환원해 버린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알 만한 대중 영화들의 리뷰를 예로 들며, 주인공이 처한 젠더-계급-지역 등의 복합적 맥락이 단지 ‘청년 문제’로 축소되는 경우를 돌아본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서사가 소비되는 데에 아쉬움, 수치심, 불통의 갑갑함을 표한다. 그가 참고로 언급하는 한 학자에 의하면 ‘세대’가 유의미한 지표로 등장한 것은, 기존의 사회 문화 비평에서 중요한 틀거리로 작동했던 계급, 계층 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이후라고도 한다.

당연하게도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에 세대를 준거로 삼는 일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세대 경험이 현상 일반의 증후로서 발견될 수도 있고, 그렇게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틀린 것도 아니다. 문제는 어제의 20대가 오늘의 40대가 된다는 사실이 무시될 때, 장기적인 삶의 관점이 채택되지 않고 증후가 세대 너머로 확장될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을 때다. 여기에 대응한답시고 “청년”의 범주를 넓히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인 양 말하는 안이한 태도는 말할 것도 없다(“MZ 세대”는 80년대 초반생부터 00년대 초반생까지를 아울러 가리킨다).

미술에서도 정확히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실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범위는 점점 확장 중이다. 이에 반응한 결과로서의 미/수혜자 무리는 해마다 등장한다. 1년 또는 한 개 전시, 신작 등의 행정 단위로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 수급 방식이 되풀이되고, 그렇게 형성된 ‘젊고’, ‘새로운’ 미술의 데이터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이는 ‘문화’가 상품 시장의 유행처럼 빠르게 갱신되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물론, 모던 아트의 도래 이후 예술 실천은 그 자신이 살아가는 당대성-동시대성 내지는 “시대정신”-을 견지해야 한다는 요청에 줄곧 응답해 왔다. 당대성의 요구이자 ‘새로이 바뀔 것’의 요구는 스타일의 문제를 너머 ‘좋은 예술’의 미덕이 되었고, 나아가 예술(가)의 자기 인식과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어떤 당대성, 새로움이 ‘물리적인 젊음’과 너무 쉽게 결탁했다는 데서 뭔가 꼬여버렸는지도 모른다.

이에 더해, “젊은 예술가에게 보내는 편지”류의 오래된 관념 모델이 그러한 결탁을 비호해 왔다. 이는 젊음을 ‘미숙하지만 열정적인, 방향을 모르겠지만 고무적인, 거칠지만 도전적인’ 것으로, 인자한 포용의 대상, 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원하고 지원할 대상으로 설정한다.<sup>2</sup> 오늘날의 제도는 이렇듯 유구한 프레임을 적극 활용한다. 예술적·정치적·사회적 미덕의 실천으로서 ‘신진 작가 지원’을 정당화하며, 전시들은 예산의 확보와 소진, 각종 행정 절차를 착실히 수행해 낸다.

자, 질문은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

강재영은 올해 공식적으로 운영을 종료한 인사미술공간과, 대안공간, 신생공간, 나아가 현재의 전시 공간들이 꾸려온 ‘작은 역사’를 정리해본다. 그리고 이들이 견인해 온 ‘젊은’ 미술의 계기들을 돌아본다. 고근호와 황웅태는 스스로 체감한, 지난 몇 년 새 서울 미술씬의 변화에 관해 말한다. 고근호는 ‘인스타그램 이후’라 정리해 볼 수 있을 오늘의 관행에 비추어 씬의 기대감소와 무력감을 언급하고, 여기서 벗어나기를 상상해본다. 황웅태는 신생공간 시절의 관객에서 신진 작가, 공간 운영자로 옮겨가며 경험한 ‘서울에서 미술하기’의 지형을, 공간 ‘IMF 서울’ 종료와 함께 고백조로 정리한다.

강지웅, 안수민은 《젊은 모색 2025: 지금, 여기》에 관해 말한다. 안수민은 전시 내 섹션 구분과 작가 선정 기준 등에 의심을 던지는 한편, ‘젊음’에의 강박을 개인적인 관람 경험에서도 확인한다. 강지웅은 시상식 같은 오프닝 경험으로 시작해, ‘완성’된 작가를 필요로 한다는 기관 관계자의 말을 지나, 과천관 인프라를 질문한 2023년 “젊은 모색”을 언급한다. 김지영은 ‘청년’ 또는 ‘신진’ 작가로서 호명되어 제도의 수혜를 받았던 시기를 지나, 현재에 그러한 호명을 바라보면서 느낀 바를 정리한다.

이연숙(리타)과 허호정은 《젊은 모색》의 《금호영아티스트》, 《젊은 시각 새로운

2 나는 이런 결 염두에 두고 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김재혁 역),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고려대학교 출판부, 2025); 아트온페이퍼 편집(존 발데사리, 게릴라 절스, 알렉스 카즈, 케리 제임스 마셜, 조앤 조너스 등 참여, 정아롱 역), 『젊은 예술가에게 - 성공한 예술가들이 보내는 23통의 편지』(아트북스, 2009); 임근준, 「작가 P에게 부치는 편지: 2015년의 한국청년미술을 되돌아보며」, 『월간 미술』(2015년 12월호, 확장 수정), <https://blog.naver.com/crazy-seoul/223298877101>; 임근준, 「젊은 예술가들에게 보내는 편지」, 『노블레스Noblesse』(2021-09-27), <https://www.noblesse.com/home/news/magazine/detail.php?no=11298>

시선 2025》, 《Next Painting: As We Are》 등의 전시를 언급한다. 이연숙(티타)은 사실상 ‘청년’이라는 기표가 공백에 가까울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협상의 전략을 주장한다. 그리고 딱히 비판할 까닭도 없는 공백의 기획/제도를 어떻게 “길게 보고 같이 가”도록 재정비할 것인지를 질문의 방향을 옮긴다. 허호정은 2개 전시에 집중해 공회전하는 ‘젊음’을 돌아보고, 제도/자본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에 틈을 마련(해야) 하는 큐레이팅의 책임을 묻는다.

표민홍은 연속 기획 X-file의 첫 기사를 발행한다. 이번 호에서는 관람 에티켓을 비롯한 전시 경험의 “보편적” 기준을 질문하며, 관객/타자에게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전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한다.